



Bad Is Good 2

이틀 연속 Bad is good, 채권시장이 경제지표에 민감하게 반응. 8월 초 이후 채권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가가 조정되었던 만큼, 채권 금리 하락에 반응하며 주가 상승. 미국 10년 금리는 전일대비 1bp 하락에 그쳤으나, 장중 상승하다가 노동지표, GDP 수정치 발표 이후 6bp까지 하락하며 4.09%에 근접하기도 했음

미국 8월 ADP 비농업 취업자수가 전월대비 17.7만명 증가하며 컨센서스(19.5만) 하회. 전날 JOLTs 구인건수에 이어 이틀 연속 고용 지표가 낮게 발표되면서 금요일 밤 노동통계국 고용동향 발표에 앞서 노동시장 둔화를 선반영 중. 다만 7월 수정치가 기존 32.4만명에서 37.1만명으로 상향되었음. 8월 지표의 컨센서스 하회만으로 어제와 같은 채권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는 부족했을 것

비슷한 시간(한국시간 전일 21시 30분)에 미국 2분기 GDP 수정치 발표. 속보치 보다 0.3%p 낮은 전분기대비 연율 2.1%로 공개되면서 bad is good을 생각하는 시장참여자들에게 확신을 주었다는 생각. 민간소비가 전분기대비 연율 1.7% 성장하며 속보치(1.6%)에서 상향되었으나, 고정투자가 4.9%에서 3.9%로 하향. 핵심은 물가였다고 보는데, 2Q GDP 물가지수는 속보치 2.2%에서 수정치 2.0%로,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분기대비 3.8%에서 3.7%로 하향되었음

오늘 밤 미국 7월 PCE 발표 예정. 보통 월간 물가에 대한 주식시장 반응은 PCE 보다 먼저 발표되는 CPI에서 대부분 소화. 다만 최근 시장이 경제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오늘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음. 그동안 시장 우려를 키웠던 Atlanta Fed의 GDPNow도 31일에 수정 발표. 이전분기 GDP가 하향조정되면 nowcasting도 하향되는 경향이 있어 우려를 덜어갈 수 있음

시장은 9월 FOMC 전까지 추가 인상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CME Fed Watch 11월 인상확률 49.9% vs 동결확률 50.1%) 지표 발표에 따라 눈치보기하는 중인 모습. 경제지표에 대한 변동성이 FOMC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